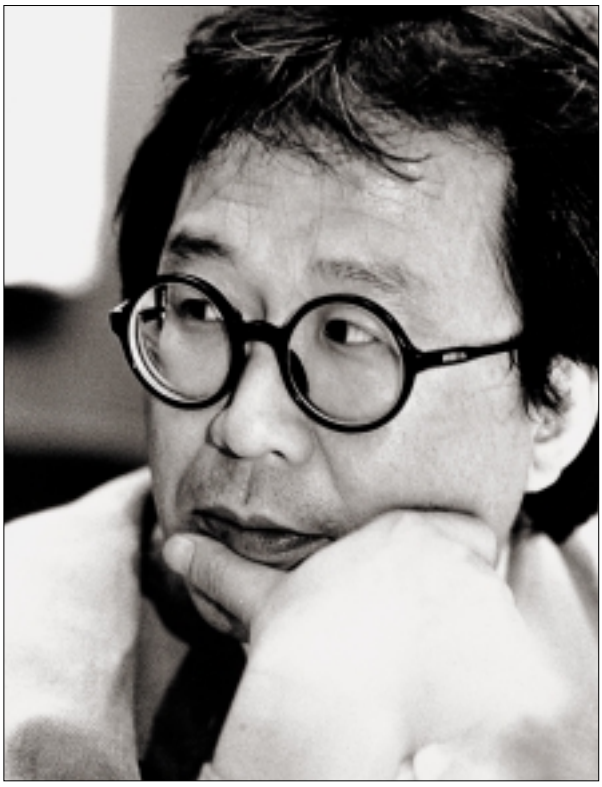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 2002 올해의 작가 ’

승효상 이로재건축사사무소 · 대표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야

서울에 예수님이 계셔서 천사들의 동네를 꼽아보시라고 했다면, 저 달동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사는 판자촌을 가리켰을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 2002 올해의 작가(중견 작가 부문) ’에 건축가로는 최초로 초대된 승효상(49 · 이로재)의 철학, ‘ 빈자의 미학 ’에 따르자면 그렇다.

1990년대 들어 그가 펼쳐온 ‘ 빈자의 미학 ’은 비록 동선이 불편하더라도 사람의 움직임이 살아 있는 그런 건축이 공간과 사람 모두를 살린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많이 움직이고 사색할 수 있도록 일부러 동선을 길게 만들기도 하며 8층으로 올릴 수 있는 터에 5층만 올리기도 한다. 이러한 ‘ 불편 ’과 ‘ 절제 ’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편리함만 좇다보니 공간의 주인인 사람이 없고 공간이 압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현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승 대표는“ 우리는 한창 개발기에 왜 잘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때보다 훨씬 잘살게 됐지만, 지금 행복한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의 부자들이 지독하게도 가난하다는 인도 어느 더러운 길목에서 구걸하는 소년보다 행복하다고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부자의 과시적이고 고립된 삶보다 더불어 살며 나눠쓰는 달동네의 골목이, 치장할 장식이 없어 사람의 움직임이 도드라지는 그곳이 풍요로운 공간이라는 것이다.

200명의 건축가가 가장 잘 지은 주택으로 뽑은, 그가 설계한 유홍준 교수의 집 ‘ 수졸당 ’이 바로 ‘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공간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승 대표가 내리는 건축의 정의는 ‘ 삶을 담는 공간 ’이다. 오래 함께 한 부부가 서로 닮듯이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도 바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분명 비즈니스 차원에서 벗어나 분명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직업일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건축은 미술적 재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이라고 말한다. 개성이 주요 기둥이 되는 미술적 재능보다 사람에 대한 존경이 좋은 건축가에게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서울이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한다. “ 강과 산,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서울에 빈자의 미학을 살린 건축이 이뤄진다면 세계 유수의 도시보다 더욱 다이내믹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이라고 예상한다.

그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을 준비 중이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 공간이란 무엇인가 ’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최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1974년부터 고 김수근 문하에서 12년 간 일했으며, 독립 후에도 김수근 문화상 2회, 한국건축가협회상 3회 수상 등 굵직굵직한 건축상을 수상한 그는 주거용 건물에서 오피스 빌딩, 그리고 파주출판단지 등 건축사에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상당수 설계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형 아파트 단지는 한 번도 설계하지 않았다.

‘ 경제성의 극대화 ’를 바라는 건설사와 ‘ 사람을 살리는 공간 ’을 주장하는 건축가가 함께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수요를 움직이고 있듯 ‘ 사람이 살아있는 주거 공간 창출 ’을 위해 승효상 대표 같은 건축가와 손을 잡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CJ

정숙진 · 기자